

한국스마트미디어학회 학회지 편집위원장/목포대 교수 최 한 석
2012. 6

세상이 바뀌어도 너무 바뀐 것 같다. 1980년대 초부터 컴퓨터를 공부한 한 사람으로 2012년 현재까지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진 컴퓨터 기술 및 소프트웨어, 응용서비스, 미디어 기술 등 수많은 IT 신기술과 용어들이 스쳐 지나간다. 이렇게 유행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진 기술이나 서비스들 중에는 세상을 너무나 획기적으로 변화 시키는 것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90년대 들어 몇 년간을 휩쓴 클라이언트 서버기반의 분산 컴퓨팅 기술은 기업 경영을 다운사이징 하는데 큰 공을 세웠고, 이어서 월드와이드웹 기술은 전 세계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기술, 인간 생활 패턴을 완전히 변화 시켜버렸다. 이어서 스마트폰과 앱 어플 및 앱서비스 기술은 또 다른 정보기술 혁명을 유도 하고 있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인간관계, 기업경영, 정보기술, 사회 제도 등 모든 사회 구조를 뒤 흔들고 있는 느낌이다. 본 스마트미디어학회에서 소셜네트워크 특집을 기획하면서 생각되는 몇 가지를 정리 해보고자 한다.

첫째, 인터넷의 발전으로 여러 가지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 시점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기타 조직에서 인간 소외를 느끼는 사람들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 온라인 인맥을 구축하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로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휴먼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기존 친구관계나 인맥관계와는 달리 세운 인관관계 재정립을 어떤 형태로 구성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따른 사회생활의 변화, 사회 제도의 변화, SNS를 즐기는 사람과 전혀 SNS를 하지도 않고 무시하는 사람들 간의 사회생활의 행태 변화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이버에서 친구 사귀기, SNS 광고를 통해 인터넷 쇼핑물, 사회 여론몰이를 하는 트윗이나 리트윗, SNS를 통한 기업경영 등 이런 새로운 개인생활의 변화 및 조직문화의 변화를 수용하는 방법이나 비판의 기준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좋을 듯하다.

셋째는, SNS 서비스를 통해서 생성되거나 파생되어 나타나는 새로운 정보기술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모든 정보처리 데이터들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재창조되면서 이런 빅데이터를 어떤 형태나 신기술로 처리되는지 최신동향을 고려해야 한다.

본 학회지에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특집을 내면서 크게 고려한 점은 인문 사회과학자들이 SNS 서비스를 바라보는 눈과, 공학 및 자연과학을 연구하시는 분들과의 서로 다른 시각 차이가 무엇인지 느끼게 하고자 한다. 인간들 모두가 눈과 귀, 머리를 가지고 있지만, 자신들의 사고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귀를 다른 영역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위하여 서로 넓혀 갔으면 한다. 한국스마트미디어학회에서 추구하는 다양한 학문과 인간들과의 통섭을 소셜네트워크 특집원고를 보면서 느끼시길 바랍니다. 본 특집을 위해 원고를 특별히 기고를 위해 수고해주신 호남대 김원자 교수님을 비롯한 집필진 여러분, 충북대 유재수 교수님, 조선대 김관구 교수님, 목포대 최종명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SNS를 통해 모든 인간들이 서로 이해하고 소통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 합니다.